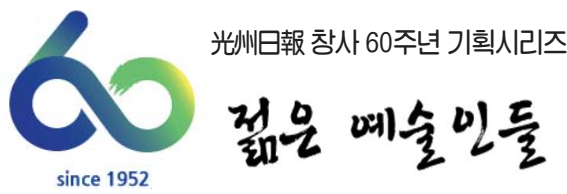


기획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씨는 현대음악 그룹 '루미나시아' 단원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현대음악 어렵다는 편견 깨고 싶어요”



(10)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37)씨는 어릴적 아빠의 트럼펫를 기억한다. 출장을 다녀온 아빠의 가방 속에는 조그마한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다. 다섯살, 그 바이올린을 처음 접했을 때의 행복했던 기억과 장면들이 지금도 선명한 사진처럼 그대로 눈앞에 보인다.

집에는 언제나 음악이 흘렀다. 엄마는 집에서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양씨는 다섯살 때부터 엄마에게 바이올린을 배웠다. 어린 시절 양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줄 알았다. 양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에 처음 출전해 금상을 받았고 이듬해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후 초등부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에서 4연속 최고상을 수상했다.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광주시민회관에서 광주시향과 멘델스존의 '바이올린협주곡'을 협연하기도 했다.

양씨는 광주예고 2학년 때 호주 퀸즐랜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한국을 방문중이었던 퀸즐랜드 국립음악원 관계자의 오디션을 받은 그녀는 장학금도 주고, 바이올리니스트 카멜 케인 교수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마냥 들떴다. 당시 집에 카멜 케인 연주한 음반이 있었고,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직접 지도를 받는다는 건 17살 소녀에게 꿈같은 일이었다. 이후 외국 생활은 16년간 이어졌고 2006년에 귀국했다.

“호주에 도착한 후 몇개월간 어학연수를 받고 17번째 생일 전 입학했다. 사실 떠나기전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마냥 신났었어요. 당시 집을 떠나는 게 어떤 거라는 걸 몰랐으니까. 근데

막상 가서 생활하러니 힘들더라고요. 지금 가라고 하면 못갔을 것 같아요.(웃음) 당황스러웠다고나 할까요. 대학 3학년 때는 슬럼프도 좀 왔구요.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 아쉬움도 많았죠.”

퀸즐랜드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친 양씨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과장의 어시스턴트로 활동하며 대학 예비학교 학생들도 가르쳤고 지휘공부도 했다.

“어릴 때 외국으로 건너갔던 터라 내가 사는 곳이 집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죠. 특히 호주나 미국 대학 오케스트라는 연주회가 한달에 한번 있을 정도로 연주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어느날 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전남대에서 사람도 뵈고 해서 들어왔죠.”

귀국 후 전남대 음악학과에서 학생들을 교육했던 양씨는 2009년부터

호남예술제 4연속 최고상·중3때 시향과 협연 초기 유학 호주·미국서 16년간 학업·연주 활동 루미나시아 활동·해마다 독주회·후학 양성도

지나해까지 국악학과에서 '시창청음' 과목을 가르쳤다.

“보통 클래식을 전공하면 음악학과에서 강의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3년간 국악과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며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음악 학과에서는 실기가 중심이고, 개인 레슨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건 그것대로 장점이 있죠. 국악학과에서는 클래스 전체를 담당하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또 국악이전 전공생들과 국악과 관련한 영어 논문과 기사 등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국악에 대해 많은 것도 알게 됐구요. 제 자신도 서로 다른 스타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귀국 후 양씨는 바쁘게 움직였다. 부암아트홀 초청 연주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7차례 독주회를 가졌고 다양한 음악그룹 활동도 병행하고 있

다. 3월초에는 가야금연주자 성심순(전남대 국악과 교수)씨와 색다른 무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양악기의 앙상블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하지만 국악은 악보보다 들리는 실음이 먼저 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연주할 때 더 잘 들어야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처음 가야금과 연주한 게 한국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우리음악이니까 한번 해보자. 싶은 마음이었죠. 이번에 다시 가야금과 산조가락을 연주하면서 같이 잘 놀았다. 즐겁게 연주했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양씨는 2011년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작곡가 정현수, 지휘자 박지용, 첼리스트 김창현씨 등 음악 동료들과 현대음악 그룹인 '루미나시아'를 창단, 단장직을 맡고 있다. '루미나시아'는 '빛'을 의미하는 '루미나'와 아시아를 합쳐 만든 이름이다.

“지역에 다양한 앙상블이 많지만 현대음악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그룹은 없어요. 그래서 몇몇 음악인들이 의기투합했죠. 사람들이 현대음악에 대해 '어렵다'는 등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쉽게 들을 수 있는 곡들도 많아요. 지난해 두차례 연주회를 가졌는데, 청중들이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음악가들과 자주 만나 연주하고, 어울리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 자신이 풍성해졌어요. 또 우리 지역 음악발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죠.”

루미나시아는 올해 5월 공연을 시작으로 두차례 연주회를 계획중이다. 양씨는 또 모나무르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악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까지는 출장했던 광주예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12월에는 개인독주회도 열 계획이다.

“그림 보는 거 좋아해요. 미술과 음악 사조가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그림을 보는 것도 흥미로워요. 특히 인상주의 작품이나 루벤스 등 바로크 미술에 관심이 많아요. 재즈도 많이 들죠.”

음반 레코딩 작업은 양씨가 조만간 꼭 이루고 싶은 일이다. 녹음실에서 연주하는 건 적성에 맞지 않아 실황 연주로 음반을 제작할 생각이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잠시 사진기자를 위해 포즈를 취하면서 들려준 바이올린 선율은 아름답다. 그녀는 맑은 웃음과 아름다운 연주가 사람들에게 해피 바이올리스트를 전해줄기를 바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양새미’를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훌륭한 스승 만나 큰 가르침 ‘소리 예술’ 세월·노력 배워

▲자연 음악은 자연의 모방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自) 그러한(然) 자연처럼..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가!

▲스승 나에게는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는 행운이 있었다. 그들의 커다란 영향과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 얻은 것은 음악 자체가 주는 가르침이다.

색과 모양이 각기 다른 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음악을 통해 개성(다름)의 조화를 알고, 존재감 있으며, 자만하지 않고 살도록 가르쳐준다. 한음도 소중하지 않은 음이 없는 것처럼, 사회에서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중함은 하나하나가 어우러져 음악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소중한 하나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역할과 능력 또한 다양하다. 음악은 마치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 같다.

▲소리의 예술 연주자의 경우, 청중에게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리뿐만 아니라, 그 울림까지도 전달되어야 한다. 그 울림이나 여운이 있을 때 소리는 극대화되고, 전달력이 증가된다. 아마 악기를 공부하는 많은 음악인들은 이 부분에 아주 많은 고민과 생각을 담을 것이다. 물론 작품의 해석이나 원전연주와 같은 특정 스타일도 연주의 완성도를 위해 필요하지만, 아무리 해석이 뛰어나도 소리가 그것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연주의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소리를 만들기가 힘든 이유는 첫째, 보이지 않고, 둘째, 좋은 소리라는 확신이 없을 경우, 귀에 익숙한 소리가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인간은 90%이상의 정보와 지식을 시각적으로 흡수한다고 한다. 흔히, 미를 논할 때도 시각적 요소가 많이 적용된다. 음악은 소리의 예술로 소리와 그 울림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표출시킨다. 나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음악가들을 존경한다.



▲양새미는

- 1975년 광주 출생 • 광주예고 수석 입학
- 호주 퀸즐랜드 국립음악원 장학생으로 조기 입학, 석사 과정 우수졸업
- 미국 신시내티 유대 박사 학위 취득 (전역 장학생)
- 부암아트홀 초청 연주회 등 독주회 7차례
- 전남대 음악학과 출강
- 앙상블 루미나시아 단장, 모나무르 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무릎찢질, 허리찢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머리는 차게하고 허제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환증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따뜻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할애(특허번호10-096707호 발명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스 B.C.P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며 일반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한이런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경영 을 검색하세요

★ 휘나핫 반신욕 이렇게 하자

휘나핫 반신욕기는 하루에 아침이나 저녁 본인 편리한 시간에 1-2회정도 하는게 적당하다. 면비지 면티, 면양말 착용 후 휘나핫 중탕을 종이컵 한컵과 따뜻한 찬김밥용한 후 반신욕을 시작한다(약30~40분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적당하게 온도설정 하세요). 반신욕을 한 후에는 바로 샤워를 하지 않고 일정시간(30분~1시간)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다. 샤워를 하지 않아도 땀냄새나 끈적임이 없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거나 반신욕 이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더욱 좋다.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학박사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 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문의: 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공황이 있습니다. 그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옻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물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